

# “다시 간다 K리그1”...광주FC 승격 도전 시작됐다

### K리그2 19일 개막...광주, 신생팀 김포FC와 홈 개막전 승리 다짐 이정효 감독 “악바리 같은 축구 보여줄 것”...전남은 안양 원정경기

광주FC가 안방에서 2022시즌 승격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광주는 1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와 하나원큐 K리그2 2022 1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강등의 아픔을 겪은 광주는 창원, 벌교, 경주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정효 감독은 승격을 목표로 광주만의 끈끈한 조직력을 완성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압박, 수비, 공격 전술 보완에 공을 들였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의 끈끈한 조직력과 협동심을 더 부각하고, 압박과 수비 등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세하게 준비했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막전이자 감독 데뷔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겨우내 전력보강도 이뤄졌다.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가 3년 만에 광주에 복귀, 2018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하나로 묶었다.

또 문상윤과 김경민, 박한빈, 하승은 등 알짜배기 자원을 영입해 스퀴드를 다졌고, 헤이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브라질 세리에A 출신 마이키로 공격진에 매서움을 더했다.

시즌 첫 상대는 김포다. 지난 시즌 K3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포는 광주에서 프로 무대 첫발을 내딛게 된다. 광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이지만 김포는 구분상, 이상숙, 김종석 등 곁熟悉的 국내 선수들과 함께 마루오카, 유리치치 등 외국인 선수까지 영입해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

이정효 감독은 “누구든 광주를 쉽게 보지 않게 뜨거운 투혼과 악바리 같은 축구, 광주만의 신선한 에너지로 승격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주장 안영규는 “새로운 시즌을 2부리그에서 시작

하지만 선수단 모두 승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경기가 끝나면 땀과 휴, 잔디 자국이 유니폼을 뒤덮을 만큼 투혼 넘치고 끈질긴 축구를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는 2022시즌 홈 개막전을 맞아 선착순 400명에게 핫팩을 증정하고, 경기 시작 전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축포를 쏘아 올린다. 또 추적을 통해 의류 관리기, 태블릿PC, 로봇청소기, 스마트 위치, 공기 청정기, 광주FC 선수단 친필 사인볼(18명), 옥스퍼드 블루 등을 팬들에게 선물한다.

전남드래곤즈는 안양 원정으로 2022시즌을 연다. 전남은 19일 오후 4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 안양과 개막전을 치른다.

광양 동계 훈련을 통해 체력강화 및 전술훈련에 집중할 전남의 목표는 역시 승격이다.

정재희, 박찬용, 황기욱 등이 이적했지만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일군 김현욱, 장순혁, 발로텔리 등이 건재하다. 또 박인혁, 플라나, 카차라바를 통해 화력을 강화했고 J리그에서 9시즌을 뒀던 미드필더 유헤이 등을 영입해 팀을 알차게 다졌다.

쉽지 않은 상대다. 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광주FC가 19일 김포FC와의 홈경기를 통해 2022시즌을 연다. 사진은 경주 동계훈련 기간 러닝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안양은 감독들이 뽑은 우승후보 2위에 랭크됐다. 이창용, 백성동, 김동진 등 수준급 선수들을 영입한 안양은 조나탄을 완전 영입했고,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안드리고까지 팀에 가세시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상현 “필승조 힘 보태 팬들에 편안한 저녁 선사”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부상 털고 예전 구위 되찾기 박차  
플타임 뛰고 가을잔치 가고 싶어



전상현

KIA 타이거즈 전상현이 ‘편안한 저녁’을 약속했다.

KIA는 지난해 9위라는 아찔한 성적을 내지만 ‘젊은 마운드’라는 희망을 남겼다.

고졸 2년 차 정해영이 KBO리그 최연소 30세이브 기록 주인공이 됐고, 장현식은 타이거즈 역사상 첫 ‘홀드왕’에 등극했다.

8·9회를 확실하게 책임졌던 두 선수가 폐조의 컨디션으로 2022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상현까지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캠프를 치르면서 불펜의 힘이 더해졌다.

전상현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 구위를 찾으려고 하는 중이다.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다행히 몸 상태가 100%다. 아프지 않다는 게 제일 크다. 이제 어깨 부상은 의식 안 된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캠프 중간 평가를 했다.

부상을 털어낸 전상현은 필승조로 기대를 받으면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부담감 대신 ‘평정심’으로 승리를 위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전상현은 “부담감은 없다. 작년에는 부상 시즌에서 재활하고, 복귀 시즌이었다. 올해는 복귀해서 완전히 정상적인 시즌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 응용해야 할 것 같다. (넓어진 존을 활용해)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치라고 던질 생각이다. 타자들이 치게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타자들의 방망이를 끌어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역시 구위가 관건이다.

전상현은 “(부상 이후 지난 시즌) 스피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구위 차이가 났다. 구위가 좋았을 때는 더 자신 있게 던졌고 방망이가 밀리거나 파울, 헛스윙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정타가 많이 나왔다”며 “그라운드 볼이 많았던 것 같다. 구위가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구위라는 속제는 남았지만 자신감은 넘친다. 위력을 배가시켜 줄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상현은 “10개 구단 중에 불펜 투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경쟁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시너지가 된다. 올해는 많이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다. 재미있을 것 같다. 워낙 좋은 투수들이 필승조에 있다.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며 “불펜 투수들이 나갈 시간대가 저녁 8~10시 사이인데 팬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드리게 하고 싶다. 우리 불펜 투수들이 다 좋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편안한 야구’가 있는 저녁을 예고했다.

또 “지금은 보직을 떠나서 일단 부상 없이 플타임을 치르는 게 목표다. 신인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싶다”며 “(나)성범이 형도 왔고, (양)현종이 형도 왔고 가을 야구에서 진짜 한번 던져보고 싶다”고 플타임과 가을 잔치의 꿈도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국영, 실내육상 60m 체코대회 우승

김국영(31·광주시청)이 체코에서 열린 아블로네츠 실내육상대회 남자 60m에서 우승했다.

김국영은 17일(한국시간) 열린 경기에서 6초 69로, 7초25의 이반 크니소프(체코)를 여유 있게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유럽 전지훈련’의 목표인 ‘60m 6초63’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김국영은 “동계 실내시즌대회를 처음 준비해 유럽 현지 대회에 출전 중이다. 목표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유럽 무대의 벽을 느끼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기록을 단축하며 자신감을 얻었다”며 “(3월 19~21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60m 참가 기준 기록 6초63을 꼭 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남자 100m 기록(10초07)을 보유한 김국영은 올해 1월 9일 유럽으로 떠났다. 귀국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김국영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떠난다”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다.

그의 2022시즌 최종 목표는 100m 9초대 진입이다.

김국영은 “202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와 아시아게임(9월 중국 항저우)이 열린다. 내가 100m 9초대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며 “익숙한 방법으로 시즌을 시작하면 또 ‘10초1, 10초2대 기록’만 세우고 끝날 것 같다.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유럽에서 2022시즌을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국영은 21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실내육상경기대회 60m 경기에 출전해 다시 한번 6초63에 도전한다. <연립뉴스>

## KIA 캠프 “눈 온 김에 쉬어 가자”

자율훈련으로 컨디션 조절...새 외국인 투수 로니 의욕 넘쳐 눈길



KIA의 새 외국인 투수 로니(가운데)가 17일 함평 헬리콥터필드 실내 연습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호랑이 군단’이 페이스 조절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일부터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함평 헬리콥터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16일 휴식일을 보낸 선수단은 17일 이번 캠프의 5번째 팀에 돌입했다.

KIA는 지난 13일 캠프 첫 라이브 훈련에 돌입하는 등 23일 예정된 자체 연습경기에 맞춰 실전 준비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김종국 감독은 17일 캠프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이날 불펜에서는 예정대로 양현종, 로니,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의 피칭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훈련은 ‘개인 자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따로 공식적인 일정 없이 선수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자율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또 ‘하프 데이’로 오전 일정을 끝으로 선수들이 일과가 마무리 됐다.

‘눈 온 김에 쉬어 가자’ KIA 캠프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눈도 많이 내렸다. 날씨도 좋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캠프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부상 우려’도 커진 상황.

지난 15일에는 사이드암 임기영과 좌완 이의리가 각각 옆구리 근육 미세 손상, 왼손 중지 물집으로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건강’이 캠프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날 KIA는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맞췄다.

김종국 감독은 “4번째 팀 들고 선수들 지켜있는

모습도 보이고 날씨도 훈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 자아 발전 시간을 마련했다”며 “자발적으로 잔 부상이 있는 선수는 치료 위주로 그 외 선수들은 웨이트 훈련이나 코치진에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도록 했다. 상황이 잘 맞물린 것 같다. 날씨도 그렇고 선수들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아 발전 스케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자율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캠프는 바쁘게 움직였다. 선수들은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알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훈련을 진행했다.

김종국 감독도 “자아발전 시간에 선수들이 잘 찾아서 훈련한다. 선수들끼리 같이 모여서 수비 연습도 한다. 강요 안 하고 편하게 해주면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찾아서 잘 하는 것 같다. 못 하게 하면 하고 싶고 강요하면 하기 싫은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잘 찾아서 한다. 코치들도 도움 요청하면 바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넘치는 의욕 때문에 오히려 감독을 고민하게 하는 선수도 있다. 특히 새 외국인 투수 로니는 이날 캠프에서 5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하는 등 빠른 페이스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은 “의욕이 많이 넘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 선발 경력 많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려는 마음이 강한 것 같다. 투수 코치한테 쿼터는 시키라고, 개막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해줄라고 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잠시 숨을 고른 KIA 캠프는 18일 라이브 훈련을 진행하면서 실전 준비와 주전 경쟁을 재게하게 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 3관 킹메이커
- 4관 언차티드,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넷: 해저동굴 대탈출
- 5관 언차티드
- 6관 언차티드
- 9관 나일 강의 죽음
- 7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 8관 씨네케틀 나일 강의 죽음, 리코리슈 피자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2022.03.03.(목)-04.(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